

금호타이어 사망사고 반복...“사측 안일함이 부른 人災”

광주공장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대표 입건...곡성 이어 또 사법리스크 사고현장 문제점 파악하고도 조치 안해...노조 “노동자 안전 외면” 비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로 40대 가장이 숨진 사건은 사측의 안일함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사고발생 한 달 전인 지난 6월 진행된 자체 위험성평가에서 사고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 섰다고 경영 책임자도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과 4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공장 내 사망사고에 대해 금호타이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게차에서 원자재가 쏟아져 보행중이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련공정 2층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는 충분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견됐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사고지점의 지게차 통로는 보행로가 없는 교차로로 사각지대였다. 보행로가 조성돼 있어야 할 사고지점은 원자재인 고무시트 등의 각종 구조물

로 가려져 있었다. 천장에 있는 반사경은 사각지대를 비추지 않고 있어 지게차 운전자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적재물인 고무시트가 쏟아져 보행자를 덮었다는 점도 안전조치 소홀이라고 노동자들은 지적한다. 고무시트가 작업장에 쏟아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묶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조사 결과 현장에는 신호수나 유도자도 배치되지 않았다. 현장관리자의 작업 지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고 한 달 전 금호타이어는 보행로가 중대재해 위험요인이라는 점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6월 정기 위험성평가에서 중대재해 발생 장소의 유해위험 요인으로 보행자 통로 확보 미흡(사각지대)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광주공장 다른 공정에서 지게차와 보행자 부딪침 사고까지 있었다.

금호타이어 측은 “위험요소를 알고 있었지만 예산 여건상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어 더 중대한 부분을 우선 처리하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금호타이어가 역대 최고 실

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노동자 안전에 대한 투자 미비’와 ‘안일함’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지게차와 보행자 통로 미확보로 동종 사고를 겪고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아 40대 가장 노동자를 죽게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중국 더블스타 그룹이 인수한 이후 금호타이어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456억(13.9%) 달성, 지난해 매출 4조 414억원, 영업이익 4110억원의 막대한 경영이익을 거뒀음에도 노동자들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올해 임단협에 대한 교섭결렬도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13일 금호타이어는 노조측에 임단협 교섭을 요청했고 이날 교섭이 진행됐지만, 사측과 노조측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7% 인상,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며 임단협 교섭에 나섰지만 지난 달 29일 임단협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광주, 곡성, 평택 지역 금속노조원을 대상으로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전체 3545명 중 3219명 투표 참여)해 96.43%(3104명)의 역대 최고 찬성률로 정의권을 확보했다. 이로써 노조는 14일 정의대행위원회 소집 후 파업 결정을 앞두고 있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더위 식혀주는 쿨링포그 아래로 광주 지역에 23일째 폭염경보가 이어진 가운데 1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시민들이 쿨링포그(인공 안개 분사 장치) 아래를 걸어가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공사현장 100kg 철제부품, 버스정류장 앞 추락 ‘날벼락’

광주서 파편 맞은 시민 부상 행인 2명은 심리적 충격 호소

광주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설치된 크레인에서 100kg에 달하는 철제 부품이 버스정류장 앞으로 떨어져 시민이 다쳤다.

13일 광주남부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남구 방림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의 철제 고리가 50여m 높이에서 도로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A

(여·53)씨가 아스팔트 파편에 맞아 어깨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근에 있던 행인 2명도 과속 차를 증상을 보이는 등 심리적 충격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철제고리 부품은 크레인을 철거하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정류장 1m여 앞에 100kg에 달하는 철제고리 부품이 추락해 아스팔트 도로가 파이면서 파편이 튀었다.

추락 당시 승용차는 급하게 정차하며 사고를 피했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주민들은 황급하게 대피했다. 건물에 있던 시민들도 광음에 놀라 건물밖으로 나왔다.

남구는 공사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오는 14일부터 남구 내 총 7곳의 타워크레인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나선다. 사고 경위를 조사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현장관계자들에게 과태료 처분 등을 할 방침이다.

경찰과 광주지방노동청은 피해가 경미해 책임자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시속 243km’ 음주운전 추돌사고...징역·벌금형 동시 선고

광주지법, 징역 6월·벌금 100만원

술을 마신 채 호남 고속도로에서 시속 243km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30대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차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6시 30분께 호남 고속도로 천안-순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급 외제차량을 시속 243km로 운전해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4% 수준으로 운전대를 잡고 호남고속도로에서 30km 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고속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2배 넘는 시속 243km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다른 외제차량 후미를 들이받았다. 또다른 화물차량도 사고에 휘말려 운전자 2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전방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발견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발생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용서 받지도 못했다”면서 “다행히 다른 운전자들의 부상은 심하지 않지만 A씨 차량은 폐차할 정도로 파손돼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과 장거리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알코올 중독 치료 권유 아내 살해 남편 항소심서 가중형

광주고법, 징역 12년→17년

알코올 중독 치료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33년간 같이 살아온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가중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의 아파트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또 술을 마시면 병원에 입원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내밀며 “치료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에 찔려 아파트 계단으로 떨어지는

아내를 따라가 제자 범행했다. 30여 년전 공무원 재직시절 뇌졸중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직업 없이 지내다 알코올 의존증에 빠졌다.

아내는 보혈설계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자녀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압박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정황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징역12년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담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이후 A씨는 아내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씻고 밖으로 나가 모자와 바지를 사입는 등 범행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형을 가중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